

민요

<목 차>

1. 조사경위
2. 조사자료

1. 조사 경위

· 첫째 날(2006년 8월 4일)

제주시에서 16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30분쯤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인 애월읍 봉성리 어도초등학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도착하자마자 교실에 짐을 풀었다. 1차 조사는 사전조사 때 파악된 제보자 명단을 확인하고 봉성리 다섯 마을의 간략한 지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신명동에 있는 팔각정으로 2차 조사를 나갔다. 팔각정에는 동네 어른들이 많이 계셨고, 처음 나가는 조사였기에 반원들 모두 함께 갔다. 그곳에서 강명옥, 문효선 할머니를 만나 원님놀이하는 소리, 남방에 짙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사데소리, 뽕뽕장서방, 아기재우는 소리, 행상소리, 오돌또기, 느영나영 등 모두 11곡을 채록할 수 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 3차 조사를 위해 서성동으로 갔다. 행상소리를 잘 한다는 제보를 듣고 서성동의 한 할아버지대를 찾아갔으나 끝내 모른다고 하셔서

채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집 앞 팽나무(폭낭) 그늘에 앉아계시던 강정호 할머니에게서 아기재우는 소리와 사데소리를 채록하고 돌아왔다.

· 둘째 날(2006년 8월 5일)

둘째 날은 두 팀으로 나누어 조사를 다녔다. 4차 조사는 중화동에 이루어졌다. 진옥자 할머니에게서 아기재우는 소리와 밧 불리는 소리를 채록하였고 강명옥 할머니와 같은 원님놀이하는 소리와 ping-ping장서방을 한 번 더 조사할 수 있었다. 강제휴 할아버지에게서는 아기재우는 소리와 ㄱ레 ㄱ는 소리와 양산도, 잡가를 채록하였으나 양산도와 잡가 두 곡은 녹음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청취할 수 없었다.

5차 조사는, 한 팀은 동개동의 강자숙 할머니댁을 찾아가 남방에 짙는 소리, 사데소리, ㄱ레 ㄱ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를 채록하였고, 다른 한 팀은 강형관 할아버지와 강정수 할머니에게서 원님놀이하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사데소리와 밧 불리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6차 조사는 저녁을 먹은 후 새로운 제보자 파악에서 시작했는데, 변원경 할머니에게서 시집살이 노래와 남방에 짙는 소리, 사데소리를, 진정애 할머니에게서 ㄱ레 ㄱ는 소리와 방구타령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 강정호 할머니를 만났던 서성동의 팽나무에서 다시 강정호 할머니와 강일화, 강창열 할머니를 만나 아기재우는 소리, 밧 불리는 소리, ㄱ레 ㄱ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를 채록하였다.

· 셋째 날(2006년 8월 6일)

셋째 날은 7차 조사에서 중화동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제보를 해주어 김윤희 할머니댁을 찾았다. 김윤희 할머니는 머쉬 모는 소리와 아기재우는 소리를 불러주셨고, 노랫소리를 듣고 놀러오신 김봉옥 할머니에게서 밧 불리는 소리, 해녀 너 짓는 소리, 오돌또기, 명텅구리타령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서성동 어느 팽나무 그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강제출, 문정숙, 강춘자 할머니로부터 사데소리, 아기재우는 소리, 해녀 니 짓는 소리를 채록하였고, 강남인 할아버지로부터 담바귀타령, 베짜는 소리, 바느질노래를 채록하였다.

8차 조사는 대부분의 반원들이 사실 전사에 주력하였고, 몇몇의 반원만 임진 할머니댁에 가서 사데소리, 민취 모는 소리, 밧 불리는 소리, 아기재우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ㄱ레 ㄱ는 소리를 채록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2. 조사자료

1) 노동요

(1) ㄱ레 ㄱ는 소리(맷돌노래)

이 민요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부녀요이며, 또한 제주도 여성들의 생활 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표출한다. ㄱ레 ㄱ는 소리는 주로 집 안에서 보리쌀이나 콩 등의 알곡을 맷돌에 넣고 갈면서 부른다. 부엌, 마루, 처마 밑, 마당 등 집안의 일정한 장소에 명석이나 덕석을 깔 후 그 위에 맷돌을 놓고 이 노동을 한다. 맷돌질은 두 사람이 같이 노동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은 맷돌을 회전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맷돌을 회전시키는 일과 병행하여 곡물을 맷돌에 담는 일을 한다.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강제휴 할아버지댁)

제 보 자 : 강제휴(남, 72세 - 돼지띠)

나눌레¹⁾라 산님영가라
이여이여 이여동허랑
나눌레랑 물님영가라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동개동(강자숙 할머니택)
제 보 자 : 강자숙(여, 76세-양띠)

이여이여 어-어- 이여도허랑
이여이여 어-어- 이여도허랑
꺄를²⁾나라³⁾ 딱허영먹게
느네이방 낭곳의강⁴⁾
딱아니 허영놔두민 욱들어진다
이여이여 어-어- 이여도허랑

- ③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진정애 할머니택)
제 보 자 : 진정애(여, 85세-개띠)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꺄레날이 지남석⁵⁾이여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꺄레날이 지남석이여

1) 노래
2) 가루
3) 날라
4) 나무허러 가서
5) 자석처럼 위아래 짝이 딱 붙어서 잘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여겨짐

그레굴앙 요일허자

- ④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 제 보 자 : 강일화(여, 63세 -원숭이띠)

어 - 이여도허랑
 어느언제랑 요그레굴앙
 즈낙⁶⁾을허영 먹어보리
 어영이영 이여도허랑

- ⑤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임진 할머니택)
- 제 보 자 : 임진(여, 85세 -개띠)



임진(여, 1922년생)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나놀레라 산넘영가라 물넘영가라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이놀레에 이그레굴랑
 얼마나먹고 살겠는고
 그레무거왕 들르지도 못하는그레
 매일 이그레그랑 먹으멍 살아남을
 어평허영 살건고 허난
 앞길의 세상이 막막하고 막막하다

6) 즈낙. 저녁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2) 검질 매는 소리(밭매는 노래 - 사데소리)

밭 매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제주도의 주곡이 조·보리와 잠곡이므로 매어야 할 김이 많아서 이 민요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락도 빼어난 편이다. 지역에 따라서 전승되는 노래의 다양성이라든가 종류가 다른 점도 주목된다. 사데소리, 진-사데, 너굽이 진사데, 석굽이 진사데, 쫓른사데, 중간사데, 주침사데, 아웨기, 흥애기, 상사디아요, 담불소리, 더럼소리 등이 있다.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

어기여랑 사데⁷⁾로구나
 사데불렁 요검질매게
 앞명에⁸⁾ 곧나장아장
 흔저오랜 손이나친(다)
 검질짓고 굴러진밭데⁹⁾
 굽은새로 여이멍에가게



강명옥(여, 1939년생)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 제 보 자 : 문효선(여, 74세 - 닭띠)

7) 검질 매는 소리

8) 앞쪽에 있는 밭머리

9) 검질 짓고 굴러진 밭: 김이 우거지고 굽이가 늘어진 밭에

어기여랑 사테로구나
사테불렁 검질매게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¹⁰⁾랑 무너나나라
어기여랑 사테로구나
검질짓고 굴러진밭데
사테불렁 요검질매게

- ③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정호(여, 80세 - 토끼띠)

어기여랑 놀래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앞명에 끝나자¹¹⁾아장
흔저오랜 손치엄져
검질짓고 굴러진밭데
굽은쇠¹²⁾로 여물¹³⁾매자
어기여랑 사테로구나



강정호(여, 1927년생)

- ④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정호(여, 80세 - 토끼띠)

10) 뒤쪽에 있는 발머리
11) 남자(男子)를 일컫은 것으로 추정됨
12) 굽은쇠 : 호미
13) 여물. 콩, 팥 따위의 꼬투리 속의 물알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기여랑 상사데로구나 어-
곶은쇠로 여이명매자
어기여랑 상사데로구나

- ⑤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동개동(강자숙 할머니택)
제 보 자 : 강자숙(여, 76세-양띠)

어허-기 어려어- -영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 무너나나라
앞명에에 곤남자안장
흔저오랜 손이나침찌
손칠적에 눈아니치라

- ⑥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강정수 할머니택)
제 보 자 : 강정수(여, 70세-소띠)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앞명에엔 곤나자아장
흔저오랜 손을치네



강정수(여, 1937년생)

손칠적에 눈아니치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양석¹⁴⁾싸라 물에나들게
메역¹⁵⁾좋은 여회로가게

- ⑦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 조사장소 : 신명동(강정수 할머니택)
- 제 보 자 : 강정수(여, 70세 - 소띠)

아침사데는 즈직즈직¹⁶⁾
저녁사데는 느직느직

- ⑧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 제 보 자 : 강계출(여, 74세 - 닭띠)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고
뒷명에랑 나가라
고봉명에 여이명메라¹⁷⁾



강계출(여, 1933년생)

- ⑨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가축병원 앞 공터)

14) 양식
 15) 미역
 16) 같은 일을 연달아 갖게 치르는 모습
 17) 힘써서 매라

제 보 자 : 변원경(여, 76세 - 양띠)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검질깃고 굴늑진밭디
 고비칭칭 돌아온명에
 고분쉐로 여이명매게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무너사라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3) 남방에 짙는 소리(방아노래)

제주도에서는 방아를 남방에(나무방아)와 몰방에(연자방아)로 나누는데, 전자는 사람이 직접 곡식이나 떡방아를 짬는 것이고, 후자는 소나 말에 연자매를 매고 돌리면서 곡식을 짬는 것이다. 여기서의 남방에짬는소리는 전자인 남방에를 짬을 때 부르는 민요이다.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

가시오름 강당장¹⁸⁾집에
 세쿨방¹⁹⁾에가 새글럼서라²⁰⁾

18) 가시오름 강당장: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살았다는 대부호 대부호였지만 지나친 몰욕 탓으로 풍수에 밝은 스님을 박대하다가 온갖 이변이 일어나서 삼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제주 전역에 널리 퍼져 있고, <방아노래> 사설로도 흔히 불렀다.

19)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구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 맞추어 짬어 넣으면서 방아를 짬는 일

20) 사이가 어긋나 어울리지 못하더라

전승²¹⁾긋인 요내몸가난
세콜방에도 새맛아간다²²⁾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그거 끝이주게. 그거고랑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하는거주기]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가축병원 앞 공터)
제 보 자 : 변원경(여, 76세 - 양띠)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옥황상제 큰딸아긴 얼굴은 이빠도
세콜방에 새글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가시나물 강당장칩의 말젓딸아기²³⁾
얼굴이 오꼴이 틀어져도
여섯콜방에도 새맛참찌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③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동개동(강자숙 할머니댁)
제 보 자 : 강자숙(여, 76세 - 양띠)²⁴⁾

21) 팔자

22) 새 맛다 : 사이가 알맞아 절구공이가 서로 부딪치지 않다

23) 말젓딸 : 셋째딸

24) 제보자는 일명 '부저리민요'라고 하였다. 이는 노래의 소재로 등장한 '부저리'를 따서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큰똥아기 상수므름²⁵⁾
 부저리집의 상아덜²⁶⁾에
 메느리드난 은방엿²⁷⁾귀 아흙이더라
 은방엿귀 날아니준덜
 방엿비²⁸⁾사 날아니주라
 가시전답 날아니준덜
 유기제물 날아니주라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방엿혹²⁹⁾이 돌게나지라
 방엿혹이 돌게나지라
 방엿혹이 돌게나진덜
 나먹을밥 혼술이시라
 큰드레³⁰⁾로 혼끼를때젠
 진산만산 지픈³¹⁾곳에 들어를가난
 정당멀리 췌멀리줄³²⁾에
 발을걸령 유을엄서라³³⁾
 부르는건 어머니여
 좇는건 물이로구나

25) 부저리 (관용표현) <민> 북계주군 애월읍 어도리 지경인 상수므름에 살았던 대부호

26) 상아덜 : 만아덜

27) 은방에 : 은으로 만든 절구

28) 방엿비 : 방앗간에서 방아 찧을 때에 쓰는 비

29) 방엿혹 : 절구의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물건

30) 다래. 다래나무의 열매

31) 지픈 : 깊은

32) 췌정당 : 땡땡이덩굴

33) 유을다 : 이을다. 병으로 오래 앓아 몹시 아위다

친정어멍 허시는말씀
 큰시누이 안방에앉고
 큰서방님 대청에앉앙
 웃음소리 들려나온다
 설운아기 저승땅에 들어나가건
 불여위로 도환생허영
 맏힌한을 풀어나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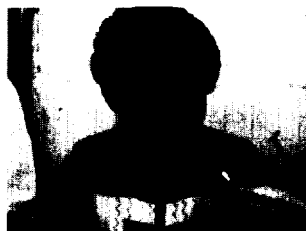
[상수머름에 살았던 사람이 부자였던 모양이라. 절구방아를 치는데 방에 치는 게 보통 다 나뉜디 그디는 은으로 한 거라. 방엿귀를.

큰 딸아기가 상수머름 부저리집의 시집을 왕 보난 아래 시누이들, 시동생 들은 요망지고 큰아들이 호끔 미련한가봐. 경허난 이제 같이 밥도 못 먹게하고 시누이들이 막 허거든. 경허난 이제 방에지명 하는 소리가 ‘은방엿귀 날 아니준덜 방엿비사 날아니주랴’ 느네 당초 모른다. 그게 웬 말인고 하든. 이 방에 영 탈랑탈랑 저가민 쏠이 이래저래 살락살락 뿌려질 거 아니냐. 경허민 저 대죽 비차락으로 그거를 이레 흑드레 쓸어놔야 되거든. 바깥으로 튼 것을 사랑하게 쓸어놓으면 방에 질 때에 서이나 너이나 지민 그 순간에 이것을 방 엿귀에 못지 안 허게 확 쓸어놓고 확 쓸어놓고 하는 그 빗자리를 큰 동세만 쓰는 거. 물명허든 요망지든. 그건 왜냐면 빗자리를 옛날 속담으로 아래사람이 쓸면은 더운 물이 나가지고 아방보다 아들이 모녀 죽고, 하르방보다 손지가 모녀 죽고 한다고 어디까지나 종손, 잘했든 못했든 하는 거난 그건 할 수 어시 줘야 주, 큰메느리난. 경 허고 ‘크게나 진들 나 먹을 밥 혼술이시랴’는 방엿혹이 돌게나 지라, 크게나 지라 하는 소리지. 나 못 먹으니까 이제 틀 드래 산에강 산드래 타먹어그네 한끼 때젠 올라가신디 정당멀리 췌멀리줄에 발을 걸리난 닝그령 이제 오도가도 못햐주게. 경허난 이제 거기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코 막 물 그럽고 허영 친정어멍은 웬 일인고 허영 상수머름에 강 보난, 그년이젠 발걸령 죽엄젠 허난 큰 시누이도 안방에서 웃고 큰 서방님도

대청에 앉았 또 햄주기. 거난 이제 친정어머니 허는 말이 ‘설운아기 불여위로 도환생허라’ 그 집의 식구들 못살게 허라. 경헌 말이주게]

(4) 무쉬 모는 소리(마소 모는 노래)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김윤희 할머니댁)
- 제 보 자 : 김윤희(여, 61세-개띠)



김윤희(여, 1946년생)

어러 요췌야 빨리 걸라
 어러러러러러러러러 흥저 걸으라
 이러-리 어러러러러 흥저 걸으라 요몰들아

- ②³⁴⁾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임진 할머니댁)
- 제 보 자 : 임진(여, 85세-돼지띠)

어- 흥애로구나 어-어-어-
 요놈의 출 어느제랑 비어그네 끄슬 날이 요 흥애로구나
 이놈의 췌야 빨리걸라
 어느제랑 저디갈건고 이러이러
 [정흐멍 췌 등 뚝뚝 두들기멍 어령어령-]

(5) 바느질노래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34) 사진에 흥애기는 발매는 노래의 한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르신 할머니께서는 마소 몰 때 부르는 노래가 흥애기라고 하셨다.

제 보 자 : 강남인(남, 78세-뱀띠)

몸을빼여 품을팔양
 삭바느질 나는간다
 관대³⁵⁾ 도포 창의 직양
 섭수 쾌자 중추막과³⁶⁾
 남녀의복 하삼모의³⁷⁾
 상침질 깎음질 고조누비 외올뜨기³⁸⁾
 하사누비 망건꾸미기와
 갓끈 좁아 고내기와
 행경 버선 다님 중치



강남인(남, 1929년생)

(6) 베짜는소리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남인(남, 78세-뱀띠)

오늘날은 하 심심하길래
 베틀가나 불러나볼까
 에헤영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지누나
 낮의짜면은 일광단이요
 밤의짜면은 야광단이라

35) 사모관대의 줄임말

36) 두루마기

37) 여름에 입는 의복

38) 바느질의 종류

일광단야광단 다짜놓고서
정든님 와이셔츠나 짜드러볼까

(7) 밭 불리는 소리(밭 밟는 노래)

이 민요는 밭에 좁씨를 뿌린 후 밭을 잘 밟아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다지고자 할 때나, 띠밭을 일구고 나서 흙덩이를 부수고 부드럽게 하여 띠를 쉽게 쳐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말 또는 소똥을 밭에 몰아넣고 밭을 밟도록 유도하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진옥자 할머니대)
- 제 보 자 : 진옥자(여, 85세-돼지띠)

어려러려 어령하랑 돌돌돌돌돌
어려 어랑도 하랑

[나 놈하는 거 들었주 경 허어나진 안했져게. 몰테³⁹⁾ 빌어당 조 허민이 그 디 불리젠 흥민 그 사람이 어령하라 하는 거 나 들어났주게...]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 조사장소 : 신명동(강형관 할아버지대)
- 제 보 자 : 강형관(남, 74세-닭띠)

어러러러 돌돌돌돌 요놈의 몽아지 얼른얼
른 걸으라 돌돌돌돌



강형관(남, 1933년생)

39) 몰테우리 : 말뚝을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

이렁마 두렁마 돌돌
아 어러러러러 돌돌돌 어러러 돌돌돌

- ③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강형관 할아버지대)
제 보 자 : 강형관(남, 74세-닭띠)

이러러러러러 어러러 돌돌
높은디랑 불라가멍
어러러러 돌돌돌돌돌
골고루 족족 불브라
요몽아지 저몽아지 골골루 불브라 돌돌

- ④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일화(여, 63세-원숭이띠)

어러러러 훈저걸라 훈저걸라
어 요노무 몰들아
어러러러 돌돌

- ⑤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창열(여 61세-돼지띠)

어러러러러 요빳 불령⁴⁰⁾ 조이랑 나건
구리대로 낭을 썩고 으름이랑

구슬으름 췌으름 올게허여줍서
어러러러러 이러 이러 어러러러
요디도 살앗구나 요쪽에도 불러보자
어러러러러 이러 이러 어러러러
요조이랑 낭기라건 구리대로 키와줍서
으름이랑 올건 구슬으름 췌으름 올게 허여줍서
어러러러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어러러러러러 요쪽으로 가봅시다
어러 러러러러 이러 이러 어러러러러

- ⑥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김윤희 할머니택)
제 보 자 : 김봉옥(여, 73세-개띠)

어랑어랑 돌돌돌돌
요므쉬야 꺾은밭 잘도돈다
어염⁴¹⁾돌멩 돌아보라
어러러 돌돌돌돌돌돌돌돌돌
어- 돈다돈다 돌돌돌돌돌

- ⑦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임진 할머니택)
제 보 자 : 임진(여, 85세-개띠)

어령어령 어려돌돌 어러러러 려러

40) 불러다 : 파종한 밭을 밟다

41) 예염. 옆, 가, 근처

어려 돌돌돌돌돌 - 이몽아지들아
빨리글라 빨리가야 이빳불령 같거아니가
어려려려 어령 돌돌돌돌 어려려려



김봉옥(여, 193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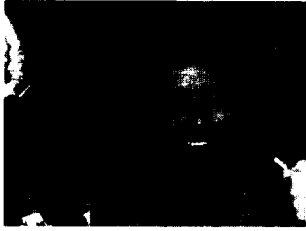
(8) 해녀 닦는 소리

①⁴²⁾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김윤희 할머니택)
제 보 자 : 김봉옥(여, 73세 - 개띠)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느제랑 요물질을
허영 돌아가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어머니 날날적에
요해녀허랜 날났던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저산너머 넘어가난
저녁마다 골목골목 연기만난다
어서가자 어기야쳐라
이어도사나 어서가자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춘자(여, 67세 - 용띠)

42) 봉성리는 중산간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노래는 김봉옥 할머니가 시집오기 전에 처녀 적에 물질하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했다.



강춘자(여, 1940년생)

물로나뻡뻡 돌아진섬에
 삼시끓엉 물질헌들
 한푼돈도 돈일러라
 두푼돈도 돈일러라
 한푼두푼 내와보난
 낭군님술값이 부족일세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아니놀지는 못노리라
 바람불고 비올줄알면
 어느아낙이 빨래허멍
 시집가서 못살줄알면
 어느처자가 시집을가라

[실제로 그렇진 않으니 우리도 육지 가서 살아보니깐 제주도도 남자는 애기보고 여자는 물질헌댄 하잖아 이. 삼시 끓엉 물질 헌들 한푼 두푼 돈벌엉 낭군님 술값에 모자란댄 말이여. 그게 그런거 주게. 그러니까 섬의 이미지인 노래주게]

2) 동요

(1) 꿩꿩장서방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

꿩꿩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삼년묵은 그릇박티

콩한방울 주성먹영 살암찌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진옥자 할머니택)
- 제 보 자 : 진옥자(여, 85세 - 개띠)

핑핑장서방 어찌어찌 살암나
 삼년묵은 그릇밭티
 콩한방울 주성먹영 살암찌

(2) 아기재우는 소리(자장가)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 제 보 자 : 문효선(여, 74세 - 닭띠)



문효선(여, 1933년생)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당
 질긴질긴 총배⁴³⁾로 걸려메영
 지픈지픈⁴⁴⁾ 천지소레 들이첫닥 내첫닥 허키여⁴⁵⁾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서자랑 착한아기
 자랑자랑자랑 웁이자랑

43) 총배 : 말(馬)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드린 참바.

44) 지프다 : 깊다(深)

45) [이건 별주켄 하는 말이라]

[잊어부렁 못하켜. 거꾸로 노다 되어그네게]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정호(여, 80세 - 토끼띠)

웁이자랑 뽁이자랑 우리아기 재와줍서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질긴질긴 총배로 발모가리 손모가리
줄라메영 지핀지핀 천지소에 들이쳤닥
내쳤닥 허키여 뽁이자랑 뽁이
저래가는 검둥개야 이래오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질긴질긴 총배로
발모가리 손모가리 줄라메영 지핀지핀
천지소에 들이쳤닥 내쳤닥 허키여

- ③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정호(여, 80 - 토끼띠)

웁이자랑 뽁이자랑 우리아기 자는 것은 줌소리요
노는 것은 글소리며 뽁이자랑 뽁이자랑
금도자랑 흐도자랑 저래가는 금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재와주민 질긴질긴 총배로

발모가리 손모가리 줄라매영
 지픈지픈 천지소에 들이쳤다 내쳤다 허켜
 뽕이자랑 뽕이자랑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뽕이자랑 뽕이자랑
 어진 할머니 손지 궤양⁴⁶⁾궤양 재와줍서
 뽕이자랑 금도자랑 우리아기 자랑자랑

④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진옥자 할머니택)
 제 보 자 : 진옥자(여, 85세-개띠)

뽕이자랑 뽕이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검둥개야 울지마랑 이디저디 잘자라
 호둥개야⁴⁷⁾ 잘자라 뽕이자랑 뽕이자랑

[정허는 거주게. 정허멍 아기구덕 흥글멍...그런거 정허영(녹음해서) 뽕힐 디게...]

⑤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봉성리 노인회관
 제 보 자 : 강제휴(남, 72세-돼지띠)

뽕이자랑 자랑자랑 뽕이자랑 자랑자랑
 우리아기 자는소리 늑의아기 노는소리
 은도자랑 금도자랑 옥도자랑



강제휴(남, 1935년생)

46) 고이(고양)
 47) 옥둥개야

어지시던 할마님 손지 든밥맥영 재와줍서
왕이자랑 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자는게 자는소리 노는게 노는소리
왕이자랑 자랑 우리아기 든밥맥영 든좁⁴⁸⁾ 재와줍서
왕이왕이 왕이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자는게 자는소리 노는게 노는소리
왕이자랑 자랑자랑

- ⑥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문정숙(여, 68세 - 돼지띠)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웨⁴⁹⁾크듯 크라
춤웨⁵⁰⁾크듯 크라
우리아기 혼저 재와도라

- ⑦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임진 할머니댁)
제 보 자 : 임진(여, 85세 - 개띠)

왕이왕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자랑
혼저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혼저자라 혼저자민

48) 단잡
49) 물외
50) 참외

일헐거 아나가 느아니장 일 못허염시네
어평할거니 웅이웁이 웅이자랑 자랑자랑

(3) 원님놀이하는 소리(다리뽑기하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

훈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사설
구월 나월
상짓 밋디
버드 날러
올롱 달롱
지등에 축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진옥자 할머니택)
제 보 자 : 진옥자(여, 85세 - 개띠)

훈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사설
구월 나월
상전 밋디
버드 낸

얼롱 절롱

지등에 축

- ③ 조사일자 : 2005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강정수 할머니택)
제 보 자 : 강정수(여, 70세 - 소띠)

훈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사설

구월 나월

선경 밧디

올롱 줄롱

지등에 축

3) 시집살이요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쩍디가
아공애야 말도말라 고추장단지가 맵드라해도

[아이라. 그거 아니라. 무신거엔 ㄱ라냏져마는...]

암투⁵¹⁾같은 시어명에

물꾸럭⁵²⁾같은 시누이에
조카메기⁵³⁾같은 시아주방에

[경도 고라나신디...모르켜...]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⁵⁴⁾

돌도울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았더니
시어머님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랫가라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하늘같은 갓을쓰고 구름같은 말을타서
본체만체 지나가네 이것을본 며느리는
흰빨래는 희게하고 검은빨래 검게하여
집이라고 찾아오니 시어머님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사랑방으로 들어가라
사랑방으로 들어가보니 아홉가지 술을놓고
기생첩을 옆에차고 본체만체 먹는구나
이것을본 며느리는 사뿐사뿐 걸어나와
명주석자 수건으로 목을메어 죽는구나
이것을들은 서방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51) 암탉

52) 문어

53)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버리고 남은 즐기

54) 이 노래는 육지부에서 전승되는 '진주장군'이란 서사민요로 시집살이의 애환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불러주신 제보자는 제주에서 한 평생을 사셨고, 어려서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육지부에서 전해진 시집살이 민요로 추정된다.

아이고아이고 내팔자야 네그럴줄 내몰랏다
본처는 삼년이고 기생첩은 석돌이라
아고아고 내팔자야 네그럴줄 내몰랏다

[이름도 몰르고 제목도 몰르고 난 놈의 아이들 영 부르는 거 들음배끼]

- ③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동개동(강자숙 할머니택)
제 보 자 : 강자숙(여, 76세-양띠)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쩔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고치장이 맵다한들
시집살이보다 더맵느냐

- ④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서성동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창열(여, 61세-돼지띠)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쩔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고치장이 맵다한들
시집살이보다 더맵느냐

- ⑤ 조사일자 : 2006년 8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강정수 할머니택)
제 보 자 : 강정수(여, 70세-소띠)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쩔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고치장단지가 맵다한들
시집살이보단 더맵느냐 장독⁵⁵⁾닭은 시아방에
암투닭은 시어명에 물꾸럭닭은 서방님에
족제비닭은 시누이에 아이구나 애야 말도말라

- ⑥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가축병원 앞 공터)
제 보 자 : 변원경(여, 76세 - 양띠)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쩔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고치장단지가 맵다한들
시집살이보다 더아이맵나
초록치메⁵⁶⁾ 명지⁵⁷⁾치메 가명오명 눈물쓰난 매기여⁵⁸⁾

- ⑦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임진 할머니댁)
제 보 자 : 임진(여, 85세 - 개띠)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쩔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시집살이 고치장이
맵다해도 시집살이보다 더매울수 없느니라
넌라그네 시집살명 시집살이받기 하지말라
시집살이 매와 생전에 백혀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55) 수퇘, 수탉

56) 치메

57) 명주

58) 끝이로구나.

아고애야 어느누가 이런말을 흐느니

4) 유희요

(1) 느영나영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 - 토끼띠)

느영나영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넘그려 운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건 드러 불르는 거 아니냐게]

(2) 담바귀타령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서성풍 폭낭 아래

제 보 자 : 강남인(남, 78세 - 뱀띠)

귀야귀야 담바귀야

동래나울산의 담바귀야

넓은세상 다버려두고

이나라찾아온 담바귀야

은을주래 나왔느냐
 은도금도 다버려두고
 담바구씨를 다갖고왔네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다 술술이뿌려
 낮이여랑 향기를맡고
 밤이여랑 찬이슬맞아
 무성하게 잘자란후로
 속에속잎을 다재져놓고
 너숫너숫 은장도칼로
 어숫비숫이 다몰라놓아
 처녀의섬은 훈섬이요
 도련님섬은 두섬이라
 청동화리에 석탄불을
 이글이글이 피와놔놓고
 담배현대 태우고보니
 오장육부가 육부를짓고
 또현대를 피우고보니
 목구멍에서 유람을돈다

(3) 명탕구리타령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조사장소 : 중화동(김윤희 할머니택)
 제 보 자 : 김봉옥(여, 73세-개띠)

구리구리 명탕구리
 명태잡으러 가는데

바람이랑 불거든
 석달백일만 불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야
 멩텅구리가 돌아온다

(바람은 팡팡 부난 바람아 바람아 불라 요 서방님은 멩태잡으레 가난 바람아 바람아 석달백일만 불어도랜. 남자가 바본디 하도 속 태우니깐 하도 미워그네 바람이 석달 백일만 불엉 죽어불라 하는거. 남자가 바람피우난 돌아오지 말랜.)

(4) 방구타령



진정애(여, 1922년생)

- ① 조사일자 : 2005년 8월 5일 토요일
- 조사장소 : 중화동(진정애 할머니택)
- 제 보 자 : 진정애(여, 85세-개띠)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 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존다니⁵⁹⁾ 방구
 시누이 방구는 이간질 방구
 남편의 방구는 꿀떡 방구

(5) 오돌또기⁶⁰⁾

-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토끼띠)
- ② 조사일자 : 2006년 8월 6일 일요일

59) 존다니 : 듣기 싫게 종알거리는 잔소리

60) 제보자 두 분이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렀으므로 한번만 적는다.

조사장소 : 김윤희 할머니택

제 보 자 : 김봉옥(여, 73세-개띠)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후렴구)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내가머리로 갈까나

한라산 허리에 시러미⁶¹⁾ 든승 만승⁶²⁾
서귀포 해녀가 바다에 든승 만승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내가머리로 갈까나

5) 의식요

(1) 행상소리 (운상하는소리)

① 조사일자 : 2006년 8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 신명동 팔각정

제 보 자 : 강명옥(여, 68세-토끼띠)

흐든(?)길로 나는가네
저봉너머 뜨던구름
정작조차 볼수없네

61) 시로미. 시로미나무의 열매

62) '든승 만승'은 원래 '익은승 만승'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만고제왕(萬古帝王) 후비들로

영영이길 가고마네

어야- 디야-

[영 허민 어- 훈박자 허여뵈 어야 디야로구나 허영 소리호곡 하는거. 이 노래는 막 한디 난 첫마디 밖에 몰라.]